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15:1-2)

오곡백과 무르익어 추수하는 수확의 계절에 주님 이름으로 문안인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일본 시즈오카 영광그리스도교회의 선교소식을 나눕니다.

1.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어릴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은후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때 그만둔 훗다 야스오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하면 특별활동이 있는데 주일에 시합경기가 있곤 해서 갈등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서있지 않으면 세상풍조에 휩쓸려 신앙에서 탈선합니다. 또 성도들간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부모님이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뜸해지게 됩니다. 훗다상은 이 두가지를 다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훗다상 형님은 미국에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훗다상은 저희 유아마인 스태프로 7년여를 근무하고 만 70세로 올해 10월에 퇴직한 분입니다. 그동안 저희 영광그리스도교회 예배때 두세번 출석한 적이 있는데, 주일예배에 출석할 정도의 믿음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훗다상이 퇴직할때 여러 장애인들과 스태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분은 올 8월에 퇴직예정이었었는데, 후임스텝채용이 늦어지면서 2개월을 더 근무해줄 정도로 책임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직장이 여럿 있는데 제일 오래 근무한 직장이 유아마인이고, 자신이 어릴적에 유아세례도 받았지만 중간에 기독교신앙에서 떠나 있었는데 유아마인을 만나고 7년을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거 같다는 것였습니다. 유아마인에서 부르는 찬양이 너무 좋고, 매일 조례때 성경이야기를 듣게 되고 QT 해설프린터를 읽게 된것이 믿음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2개월을 더 붙잡아놓고 매주 한번의 성경구연동화나 음악시간을 통해 새로운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매달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올해 6월부터 일본어로 된 QT 해설집을 트린터해서 성도들에게 매일 읽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핫다상에게도 도전하여 배포하여 왔거든요. 퇴직후에도 저희교회에서 자택에 배달중인데 매일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고령자들이 많아서 자치회 임원들은 70 세이상의 고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핫다상이 내년부터 자치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행사가 있게 되면 예배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핫다상이 주일예배에 출석하게 하셔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유년기에 핫다상을 부르신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된 핫다상일지라도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저희 선교사부부와 영광그리스도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 계신줄 믿습니다. 아멘!

후임으로 채용된 오오이시 미키상은 시즈오카시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단기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매주 채플예배와 성경말씀을 접한 귀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명중에 이 분을 채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마음이 열려 있고 매일 조례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진지합니다. 주께서 오오이시상의 청년시절에 기독교대학을 통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셨는데, 장년이 된 지금에 와서 유아마인을 만나게 인도하셔서 그의 믿음이 움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오이시상이 구원받을만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시며 하나님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을 가꾸시고 참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아버지이십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열매를 얻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의 가지들인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맺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포도나무가지처럼 예수의 몸에 연합할때만이 풍성한 생명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성의 영역에서는 어렵게 보이지만, 감사하게도 믿음은 영의 영역이기에 가능합니다. 장애인선교가 때로는 힘들때도 있지만 예수를 믿을때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에 성령께서 이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도원같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7 대연합이 이들의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할뿐입니다. 영광그리스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연합함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예수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3. 저희 가정이 이번 가을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94년 나이 30에 오사카대학 박사과정 유학중에 예수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랫동안 부부동반으로 오사카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지난 발자취를 돌이켜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되새겨보며, 박승희목사님을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주안에서 믿음으로 낳아주신 미쿠니교회 박승희목사님을 15년만에 뵈었습니다. 또 간 김에 오사카대학도 20여년만에 방문하고, 애들 키우며 살던 집과 학교와 놀던 공원도 가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어리둥절하며 그때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변함없으신 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에 숙연해졌습니다.

70연세를 맞는 박목사님 내외분께도 숨길수 없는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며 이야기나누는 가운데 어제일처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몸부림을 겪은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취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학개서 말씀처럼 미쿠니동산에 벚꽃이 피고 찬양소리와 기도소리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그리스도교회와 유아마인이 부족하지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남 동민이(90년생)는 12월초에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학회의 논문상을 받는등의 성과에 감사하며, 취직을 위해 국내연구소 연구원직과 IMF 국제통화기금등에 면접과 논문발표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대학의 교수직에도 지원준비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견고한 믿음과 체력과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주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하고, 무슨 일을 하든 동민이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장녀 이슬이(95년생)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전문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통역전문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면서 간호사로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를 하여 동경도립 간호전문학교 사회인전형에 최종합격을 하여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내년 4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 3년간 공부하고 간호사국가시험을 거친뒤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질병과 사고가 많은 현대인들 특히 장애인, 노인등의 사회적 약자분들께 의료적인 치료와 섬김을 통한 심령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간호의료전문선교사가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막내딸 살로메(99년생)는 요즘 식욕이 왕성하고 활동이 파워플해서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먹는 것에 절제가 잘 안되어 부모의 간섭을 받는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때로는 소리를 지를때도 있지만 평강과 건강이 넘칩니다. 다니고 있는 시설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로메안에 계신 주님이 살로메의 환한 미소를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나타나셔서 구원해주시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을 두손모아 간구합니다.

영광그리스도교회 Glory Christ Church in Shizuoka · NPO 법인 유아마인-장애인복지선교사역